

## 치 사

결실의 계절을 맞아 신행문화의 본보기가 되어온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9년간의 향기로운 여정을 회향하고, 사회 곳곳에 행복과 유익함을 널리 퍼지게 한 공덕을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2006년 첫발을 내딛은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호국불교의 전통과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 보살행을 실천하는 모범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호국의지를 심어주었고, 사회가 혼란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이는 불교가 민족문화수호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어두운 곳을 밝히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행을 실천해왔다는 민족사의 선명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단은 이러한 소중한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를 위해 정진하고, 공익적 가치의 구현을 통해 불교중흥의 기회로 삼고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오랜동안 지혜와 자비,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을 위해 전법행을 실천해 온 것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신행문화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이웃종교의 주목을 받을 만큼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가장 잘 실천하는 단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큼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특히 성지순례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농촌, 산촌, 어촌의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사찰주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현시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신행의 큰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묵 장학금 지급, 다문화가정 인연 맺기, 효행 장려와 군장병 격려 등, 108

선행을 실천하였으니, 혜자스님의 원력과 회원들 한분 한분의 신심이 청정한 연꽃으로 피어난 결과라 여겨집니다.

더욱이 오늘 9년간의 일정을 마치는 보람있는 자리에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불법홍포의 새장을 열며 자비로운 나눔을 통해 보현행원을 실천해 온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의 신심을 다시 한 번 깊은 마음으로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동체대비심으로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일에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사회는 불국정토에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53기도 도량 순례기도에도 많이 동참하여 신심을 다지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회향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오늘 법회가 원만히 회향되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며, 불보살님의 가호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10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